

2011년 무역환경 변동성 확대 전망

무역협회, 2011년 무역환경 전망 발표

2010년 세계 경제는 중국 등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한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미국 주택금융 침체 계속, 유럽 국가부채증가 등 다양한 불안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면서 2011년 무역환경은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2011년 무역환경전망' 발표자료를 정리·요약한 것이다. (편집자주)

▶ 세계경제

세계경제성장률은 금년도 4.4%(추정)에 이어 내년도는 3.7%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도 전망치 3.7%는 IT버블 붕괴 이후 세계경제 호황기인 04~08년 평균 세계경제성장률(4.5%)에 비해 0.8%p 하락하지만 최근 10년간('00~'09)평균인 3.5%를 상회하여 경기둔화보다는 정상수준으로의 복귀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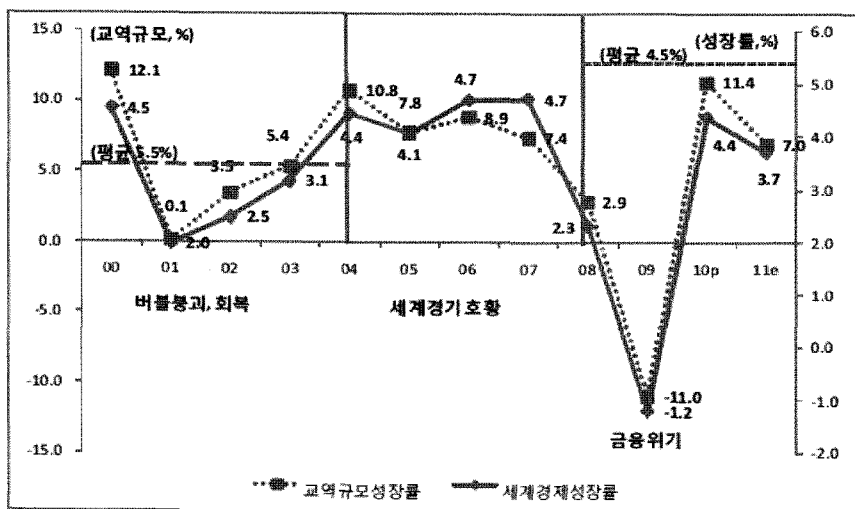
또한 내년도 전 세계 교역규모 증가율도 신흥개도국의 수출확대를 통해 7.0%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반적인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경기회복은 지연되는 반면, 우리 수출의 주요 시장인 신흥개도국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경기회복이 늦춰지는 것은 금융시장 불안 및 재정위기의 재연 가능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여건 악화 및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의 자생력이 회복되지 못한 데 기인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신흥개도국들은 금년보다는 성장률의 둔화가 불가피하나 내수 경기 부양으로 인한 생산과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되어 성장세는 유지할 전망이다.

〈 세계경제성장률 & 무역규모 추이 〉



자료 : 성장률(IMF, Global Insight 평균), 교역규모(IMF)



〈 세계경제 전망 〉

(단위 : %)

구분	2009	2010(추정)	(전망)
World	-1.2	4.4	3.7
선진국	-3.3	2.7	2.1
미국	-2.6	2.6	2.3
유로권	-4.1	1.8	1.5
일본	-5.3	3.2	1.1
신흥개도국	2.1	7.0	6.3
중국	9.1	10.5	9.2
브라질	-0.2	7.5	4.5
인도	5.4	8.3	8.4
아세안	1.7	6.6	5.4

자료 : IMF, Global Insight 전망치 평균

▶ 환율

2010년 달러화는 상반기에 미 경기회복, 남유럽 재정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으로 강세를 지속했으나 하반기 들어 재정위기 우려가 완화되고 미 연준의 2차 양적완화 기대감에 약세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유로화는 상반기 급락세에서 하반기 들어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연초 빠른 경제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1,100원대까지 하락했으나 4월 말 이후 남유럽 재정위기, 천안함 사태 등으로 1,200원대로 급등하였다.

2011년 달러화는 양적 완화로 인해 약세 흐름을 보이겠지만 일부 통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이며 유로화는 유로존의 재정불안 우려, 엔화는 일본의 정부부채 부담 및 경기부진 등으로 달러화 대비 약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국제원자재

2010년 국제원자재 가격은 유럽 재정위기 영향 속에 약세로 시작해 신흥개도국 중심의 수요증대 및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변동성을

〈 주요 투자은행 환율 전망 〉

전망기관	엔화 (엔/달러)			유로화 (달러/유로)		
	3개월	6개월	12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JP 모건	79.00	81.00	85.00	1.4000	1.4000	1.4800
BNP 파리바	82.00	85.00	90.00	1.3400	1.2700	1.2200
모건스탠리	81.00	84.00	88.00	1.4600	1.4500	1.3600
BofA	79.00	78.00	83.00	1.3300	1.3300	1.2500
평균	80.25	82.00	86.50	1.3825	1.3625	1.3275

자료 : 국제금융센터 '10.11.15 기준

〈 주요 기관 2011년 원/달러 전망 〉

기관(전망일)	1/4분기	3/4분기
Global Insight(10/15)	1,128	1,080
모건스탠리(10/21)	1,063	1,038
BNP 파리바(10/18)	1,080	1,050
스탠다드차타드(10/22)	1,050	1,050
DBS(10/15)	1,040	1,000

〈 내년도 원화 영향의 주요 변수 〉

강세 변수	약세 변수
美 양적완화 정책 남유럽 불안 완화 양호한 경제상황 금리인상 지속 中 위안화 절상	유럽 재정위기 재발 지정학적 불안 부각 선진국 경제회복 둔화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자료 : Global Insight, 로이터

나타낸 가운데, 상반기에는 철강, 하반기에는 금·곡물 가격이 급등하였다.

2011년 국제 원자재 가격은 수요증대, 달러화 약세에 따른 유동성 유입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공급증가폭은 수요 증가보다 전반적으로 낮아 수급이 타이트해질 전망이며 곡물은 기상악화로 오히려 공급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 상승세와 단기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요인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국제유가는 세계 석유 소비량이 2009년 하반기 이후 생산량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가격상승을 유도하면서 올해대비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

로 전망된다.

▶ 통상환경

2011년 거대시장인 EU, 페루 등과의 FTA 발효가 우리 수출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외에 터키, 콜롬비아, 호주 등과의 FTA협상 타결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2010년 FTA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은 13.9%에 불과했으나, 2011년 35.4%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보호주의 방지 노력이 있었으나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신규 무역 제한조치가 도입되고 비관세 장벽이 강화되는 등 무역규제가 다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0년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 〉

품목	특징
원유	상반기 중 배럴당 85달러를 넘는 상승세에서 월초 급락한 이후 70-80달러 범위에서 박스권을 형성한 후 8월말부터 재상승
비철금속	유가와 동일하게 '연초하락 → 2-3월 상승 → 5월 급락 → 연말까지 재반등'의 두 차례 V자형 추이를 나타냄
금	가격은 온스당 1,400달러를 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 9월부터 미국 달러화 약세가 나타나며 동행성이 깨지며 상승랠리 지속되었음
곡물	안정세를 보이다 하반기 주요산지의 기상악화 및 일부 수출제한 조치가 나타나면서 급등, 'Agflation' 발생 우려로 이어졌음
철강	3-4월 중 원료탄 및 철광석 공급계약 관행이 소수 공급기업에 유리하도록 변경되면서 급등하였으나 5월 이후 다소 안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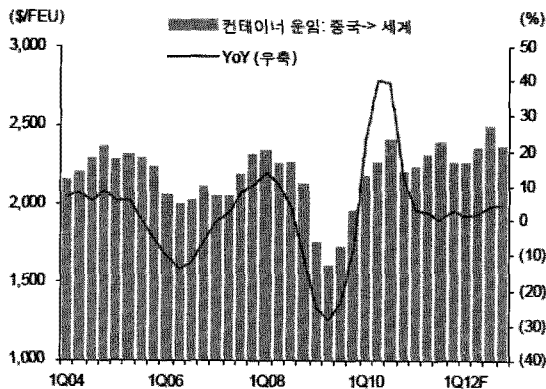
2011년 해운기업 수익 전년보다 둔화 전망

유진투자증권, 2011년 해운산업 전망 발표

2010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2011년에 대한 투자전망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은 2011년에도 해운산업의 회복세는 이어질 것이지만 기업들의 수익성은 다소 주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유진투자증권 주익한 애널리스트가 발표한 '2011년 해운산업 투자전망' 자료를 정리·요약한 것이다. (편집자주)

[도표 1] 컨테이너 운임(CCFI) : '11년 운임은 전년 대비 2.0% 상승할 전망



자료 : Chineseshipping, 유진투자증권

□ 컨테이너 시황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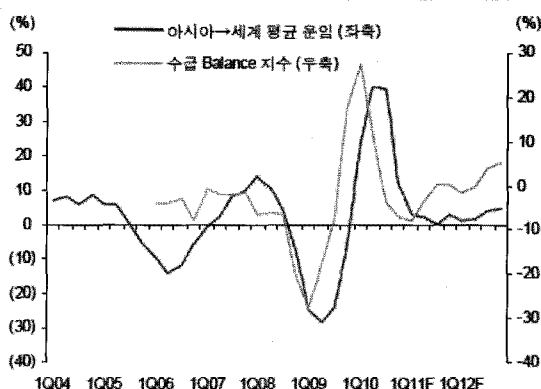
▶ 2011년 운임 소폭 상승전망

계절적 비수기인 2010년 4분기~2011년 1분기 컨테이너 해운업 수급은 크게 악화되지 않아, 운임도 전분기 대비 8.3% 하락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컨테이너 운임은 수급 개선으로 2011년 2.0%, 2012년 2.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급은 2011년 2분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컨테이너 수급개선 이유는 실질 선박증가율(총 Fleet 증가율-계선 선박 증가율)이 낮아질 것이기

[도표 3] 운임 vs. 수급 balance : 2Q11부터 다시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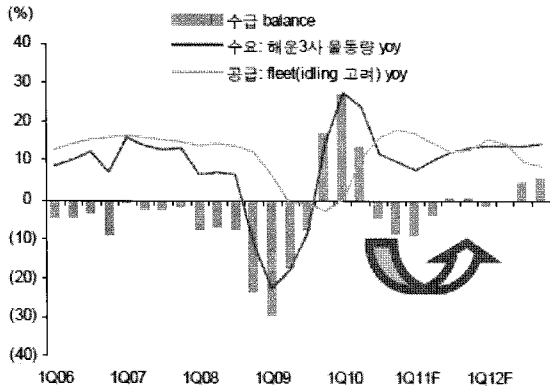
자료 : Chineseshipping, 유진투자증권

때문이며 실질적인 수급 균형은 2010년 4분기가 가장 최저인 것으로 판단되며 2011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 2011년 중반이후 물동량 증가율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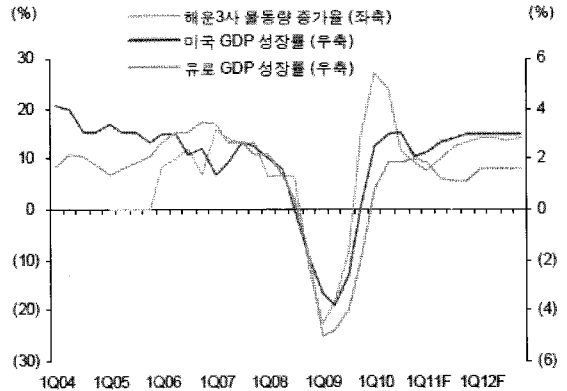
컨테이너 해운업의 수요인 물동량 증가율은 2011년 중반부터 전년 대비 소폭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선진국들의 GDP성장률이 2011년 중반부터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L.A와 롱비치항만 수입 물동량도 금융 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평균 10%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도표 4] 컨테이너 해운업 수급 balance 전망 : 2Q11부터 다시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주 : 수급 balance=수요증가율-공급증가율
 자료 : Bloomberg, 각사, Clarksons, 유진투자증권

[도표 5] 해운 3사들의 물동량 증가율은, '11년 중반 이후 다시 높아질 전망



주 : 해운 3사=한진해운, NOL, OOIL
 자료 : Bloomberg, 각사, Clarksons, 유진투자증권

한편, 공급측면인 선대 증가율은 2010년 상반기에는 전체 선대 증가율은 둔화되었으나 실질 증가율은 높아진 반면, 2010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선대 증가율은 높아지지만, 실질 증가율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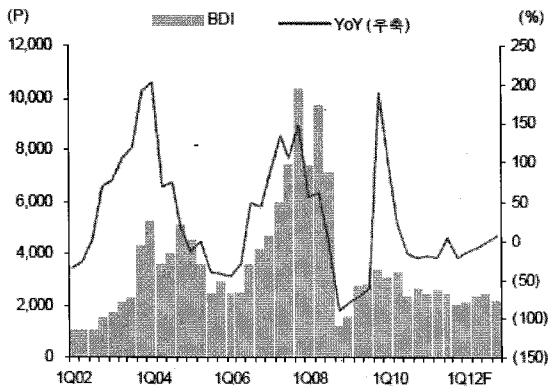
2011년과 2012년 벌크 해상물동량은 세계 GDP 성장률이 각각 3.9%, 4.2%라면, 전년대비 각각 5.8%, 6.3%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공급측면에서는 2011년 선대 증가율은 벌크 선 인도량 증가로 2010년보다 높아지며, 물동량 증가율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BDI는 2011년에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벌크 시장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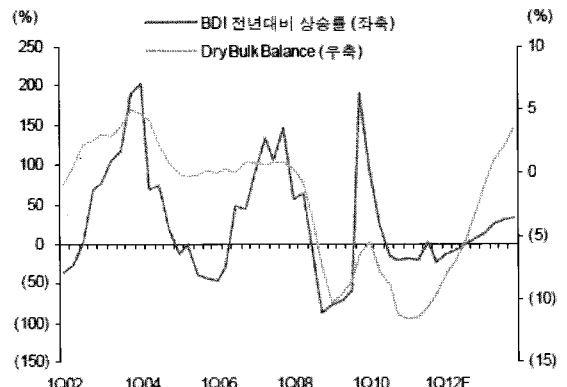
▶ 2011년 BDI 2,500~3,500전망

[도표 13] BDI전망



자료 :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14] BDI와 수급 balance 전망



자료 : Bloomberg, 유진투자증권